

정부, 환경기술 · 나노기술 집중지원

과학기술위원회, 2004년 지원예산 50% 이상 확대 ... IT비중 40% 상회

2004년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서 미래유망 신기술 6개 분야(6T)의 투자가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환경기술(ET)와 나노기술(NT)의 투자증가율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.

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최근 심의·확정한 <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·분석 결과>에 따르면, 2004년도 정부 R&D 사업에서 6T 분야에 대한 투자규모는 3조2980억원으로 전년대비 39.9% 증가했고 ET와 NT는 각각 56.9%와 51.7% 늘었다.

2004년 정부가 시행한 연구개발사업의 84.5%에 해당하는 5조9847억원의 예산 쓰임새를 분석한 것이다.

정부는 6T 분야에만 조사된 예산의 절반이 넘는 55.1%를 투입했는데, 정보기술(IT) 분야가 1조3673억원으로 전체 6T 투자의 41.5%를 차지했고 생명공학(BT) 분야가 7717억원으로 23.4%, ET가 5468억원으로 16.6%를 기록했다.

3대 분야는 전체 6T 투자의 81.5%를 차지했다.

한편,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R&D 사업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민간지원 투자비중은 조사 예산의 16.8%를 차지했다.

민간지원 투자는 특히 최근 5년간 연평균 18.2% 신장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연구비의 평균 증가율(14%)을 웃돌았다.

그러나 민간분야 지원이 대다수 개발연구(88.6%) 분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져 민간주체의 기초연구 투자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기관별로도 기업의 참여비중이 5년간 조사 예산사업의 17.7%에서 37.3%로 2배 이상 뛰어 눈길을 끌었다. 대학은 2004년 조사 예산에서 1조3233억원을 연구비로 챙겨 22.1%를 차지했다.

<화학저널 2005/08/02>